

BUSAN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EXPO

49

5천만 관광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광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2030

49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 만은 아닙니다.
대규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광객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광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광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 축제
국내를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로 물론
홍보효과도 부산은 100%의
유망 관광도시가 될것 입니다.

2017 부산체육 슬로건
부산체육인은 2030엑스포 부산유치를 기원합니다.

부산체육

2017 01+02 통권 5호

www.sports.busan.kr



똑같은 한 걸음도 무게감은 다르다!



인정엑스포?

VS

등록엑스포!



사상 최대 진짜 엑스포!

민선 6기 부산시가 추진하는 진짜 EXPO,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로 국가적 위상부터 다릅니다.

BUSAN WORLD EXPO 2030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엑스포, 등록엑스포란?

엑스포는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이익 증대, 인류에 발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인류공동의 가치실현,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제 메가 이벤트입니다.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큰 이벤트로 유,무형의 효과가 막대함이 입증되어, 국가간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월드컵, 올림픽보다 월등한 '등록엑스포'

월드컵, 올림픽은 국가홍보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지만, 등록엑스포는 주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므로 개최도시의 경제효과 창출이 막대합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록엑스포
개최기간	1개월	16일	6개월
관람객	300만명	300만명	5,050만명
경제효과	11조원	12조원	49조원

2030 부산등록엑스포 개최(안)

기간	2030. 5. 1 ~ 10. 31(6개월간)		
장소	서부산 일원 350만㎡		
참가국	160개국(관람객 5,050만명 이상)		
개최효과	투자액 4조 4천억, 경제효과 49조, 일자리 54만개		
	2010 상하이	2015 밀라노	2020 두바이
투자액	5.2조	4.3조	6.9조
경제효과	110조	63조	38조
일자리	63만개	15만개	28만개



CONTENTS

04 신년사

People & People

- 08 파워 인터뷰_최철수 아진일렉트론 대표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 12 이달의 인터뷰_김건희 선수 (소프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부산체육_Panorama

- 14 스페셜 리포트_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출범
- 22 Passion for sports_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미리 만나다
- 26 Club of rock_부산스포츠클럽 회원체력평가 및 명랑운동회
- 30 Award_부산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
- 32 줄인_제4차 이사회
- 34 Education_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 36 Workshop_체육지도자연수
- 38 Contribution_아디다스, 부산시에 체육발전기금 1억 원 기부
- 40 체력트렌트_제2회 꿈나무 체조챌린지대회
- 42 Cue strike_당구전용훈련장 개소식 및 3쿠션 대회

구군체육_Panorama

- 44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_구·군체육회 송년의 밤

회원종목_Panorama

- 48 Strike_제33회 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 49 스포츠 특목_협회장배 정구대회
- 50 물살을 가르다_제38회 동계 후쿠오카 주니어 기록 인정 수영대회
- 51 Tennis_2016 추계 협회장배 여성클럽테니스클럽대회
- 52 Round_제4회 시장배 영남권 어울림 한마당 파크골프대회
- Jump rope_제1회 시장배 줄넘기대회
- 53 국제교류_2016 부산·후쿠오카 친선교류 승마대회
- Cheerleading_2016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및 ASIA OPEN ASIA YOUTH CHEERLEADING CHAMPIONSHIP

News Briefing_부산시정·체육정책

- 54 체육정책_부산광역시·문화체육관광부

Sports tour & Health & Book

- 58 겨울 레포츠 여행_제주에서 만끽하는 레포츠의 세계
- 62 겨울철 건강관리_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는 만성콩팥병
- 64 마음을 녹여 줄 겨울 책 추천_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부산체육 2017 01+02 | 통권 5호
부산체육인은 2030엑스포 부산유치를 기원합니다.

발행일 2017. 01. 02.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5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이성재, 서원택, 공재원, 하근기, 김민지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Tel 051. 500. 1300 / 500. 7900 Fax 051. 500. 1309 / 505. 6306 www.sports.busan.kr

부산국민체육센터 Tel 051. 243. 5959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로 150 북구국민체육센터 Tel 051. 365. 707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55번지

디자인·인쇄 (주)세영에드인 Tel 051. 636. 75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안대로 629-11 * 이 간행물은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부산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2017년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만들기 애짐없는 열정을 쏟고 계신 구·군체육회장님, 종
목별협회장님, 전문체육선수, 지도자를 비롯한 동호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부
산시정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산의 모습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며, 문화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
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부
산체육 혜택을 누리면서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 각 분야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체육회가 통합을 한 이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상호 발전체계를
갖추어 부산체육이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해 올해도 최대한 역량을 모아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산 위상을 키우는 스포츠, 시민건강과 미래희망을 키우는 스포츠, 국제경쟁
력을 키우는 스포츠의 전략에 맞게 전문체육 강화 및 전국체전 성적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보급 및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의 기초기
반을 강화하고 스포츠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유년에도 변함없이 부산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
복도시 부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화합의 건인차가 되어 줄 부산광역시체육회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어둠을 걷어내고 대망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른 저 태양은 새
로운 한해의 시작과 동시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단(元旦)을 알리는
출발신호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아 시민들의 근심
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시련과 좌절이 너무나 깊고
크기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변화와 희망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모든 걱정과 갈등이 사라지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회는 변화와 희망의정을 기치로 제7대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
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체육계도 통합체육회 출범과 함께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 학교스
포츠가 한데 어우러지며 균형과 발전을 추구하고 가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뗐습
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맘껏 즐기는 바탕
위에서 학교와 엘리트 체육이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기대했던 통합의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체육 가족 여러분의 애짐없는 참여
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부산시체육회가 더 큰 화합
과 발전을 추구하고 나가길 바라며, 새해에도 우리 부산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무는 소통과 화합의 건인차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체육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체육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존경하는 부산체육인 여러분!

화합과 소통으로 부산체육이 새롭게 도약하게 될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부산 체육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 서병수 시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가맹경기단체장님, 그리고 체육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체육은 국민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웃과 친구,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육활동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의 차원을 넘어, 가정의 화목, 나아가 공동체의 단합을 이끌며 더욱 밝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문 체육 분야와 생활 체육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보는 스포츠'에 머물지 않고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건강한 생활문화 창조에 공헌하고 계신 부산체육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스포츠로 소통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가운데 스포츠로 화합하는 건강한 체육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많은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따뜻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체육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붉은 닭의 해인 2017년에는 밝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처럼 부산체육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붉은색은 힘차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닭의 울음 소리는 새벽을 알려 희망찬 출발을 상징하는 만큼, 우리 경제와 부산광역시체육회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부산 체육계는 지난해 전문체육 단체와 생활체육 단체를 25년 만에 통합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각자의 길을 걸었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체육 관련 정책제정 운용에 있어서도 통합으로 인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했습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만큼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체육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부산,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도시 위상에 걸맞은 건전한 시민기풍이 진작된 도시로 부산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먼저 스포츠정신이 살아있는 부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직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만족감을 주며 생활의 소중한 일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넓혀 사회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에서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부산의 체육발전과 체육 기반 확충은 물론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21세기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만큼 국제대회 개최는 전 세계에 부산의 역동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두 단체의 통합을 이뤘던 지난해는 부산 체육계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면, 올해는 부산 체육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더욱 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성 섬유시장 불모지를 개척하다

최철수 아진일렉트론 대표 ·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2016년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된 아진일렉트론의 최철수 대표는
지난 1991년 창사 이래 오로지 전자파
안전지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불모지였던 국내 전도성 섬유 시장을
개척해온 숙련 기술인이다.
국내 최초로 전도성 섬유를 개발한
최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대의 생산량과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도금기술을 응용하면 다양한
소재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실무자들을 통해 상당한 가치와
효과를 얻을 때가 많아요.
마음을 열고 직원들과 소통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기술유출과 어음부도, 절망 딛고 전도성 섬유 시장 개척

최 대표는 경남공업고등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화학제품 회사 (주)금양과 반도체 도금업체인 (주)풍산금속에서 도금기술을 배웠다. 외국계 약품회사에서도 기술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화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금기술을 축적해나갔다. 당시 국내의 전도성 섬유 분야는 해외에서 비싼 가격에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어느 누구도 전도성 섬유의 국산화 개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화학의 원리와 도금기술로 전도성 섬유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으면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결국 약품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1991년 부친이 살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직장시절 모아놓은 퇴직금으로 장림도금단지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장을 임대해 직원 5명으로 '유승메탈라이저'를 창업했다.

최 대표는 창업하던 해 섬유(직물)상의 금속 도금(동, 니켈)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후 창업 2년 정도 지났을 때 기술유출로 큰 피해를 보는가 하면 받은 어음 부도가 나 큰 위기를 맞았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비웃기도 했지만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국내에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 판로도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죠. 더군다나 기술유출과 어음부도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주위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최초에서 최고로, 최고에서 최선으로'**

최 대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최초에서 최고로, 최고에서 최선으로'라는 경영철학이 말해준다.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그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전자파 차폐 섬유(전도성 섬유) 개발에 매진해 왔다. 전 생산설비의 자가 설계 및 생산, 조립을 통한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최 대표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부각되고 휴대전화기 활성화되면서 전처리 및 본처리 라인을 증설하는 등 대량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기능성을 가진 골드, 블랙 카본, 실버 도금기술을 개발하고 △ Ni-Co 무전해 합금 도금기술을 이용한 자계파 차폐 원단 △건축용 수맥 및 유해 전자파 차단판 △전도성 쿠션 제품(TR) △SMD 개스킷(GASKET) 및 BU 제품 등 다양한 신기술·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약품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원가를 줄였다. 세계 최대의 생산량이지만 불량률은 1~2%에 불과하다. 사세가 확장되자 지난 2001년 녹산국가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신축) 이전한 이후 추가로 공장을 증설해 현재 5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진일렉트론의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의료기기, 자동차 시트, 게임기, 스포츠(태권도, 양궁 등) 센서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삼성, LG, 애플, 화웨이, 샤오미, 레노버, 3M, 현대·기아차, 벤츠, 아우디 등 세계적인 기업의 제품들에는 아진일렉트론의 제품이 들어 있다.

연평균 2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여 온 아진일렉트론은 올해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산된 5개의 공장을 통합한 단일 공장 건설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전도성 섬유 시장을 개척한 최 대표는 세계적인 기업인 일본의 세이렌을 제치고 현재 세계 1위의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각종 기부활동 등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실천
2015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 활동**

아진일렉트론의 기술력은 최 대표의 철저한 인재육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경력자보다 도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채용해 매주 2시간씩 기술교육을 한다. 도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하나의 직무에 두 명의 직원을 키운다. 서로 경쟁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이렇게 직원들이 회사에 정착해 10년 이상 된 기술자가 절반을 넘을 정도다. 아진일렉트론은 대다수의 도금업체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30대가 70% 수준에 이르고 대학졸업자도 40%에 이른다.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다. 최 대표의 인재육성 철학은 철저한 고용보장으로도 연결된다. 아진일렉트론에는 정년퇴직이 없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70대 직원도 일하고 있다.

최 대표는 부산대학교, 부산정보대학교와 산학 협력 협약을 맺고 전문인력, 시설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이밖에 1사 1교 결연, 사랑의 쌀 기부, 경남공공 체육회 발전 기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다. 2006년, 2009년, 2014년에는 지방납세 표창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성실한 기업으로 정평이나 있다.

“도금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전기, 화학, 소재와 재료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고 융화돼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지요. 전 도금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소재를 놓고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금까지 도금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무엇이든 건성으로 하지 않고 깊이 공부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산출신(만덕고등학교) 최초 쇼트트랙 국가대표 발탁

김건희 선수(만덕고등학교) 쇼트트랙(여자) 국가대표



2016-2017년 시즌 동안 대한민국

쇼트트랙 종목에 대해 뛰어줄 국가대표가 선발됐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당당히 태극마크를 단 김건희 선수가 눈길을 끈다.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김건희 선수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빙상 불모지에 희망의 꽃 피우다

2016-2017년 국가대표 선발 방식은 이전보다 더 세심해졌다. 10월 17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는 1, 2차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 8명이 참가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노도희, 심석희, 최민정 선수를 비롯해 김혜빈, 김지유, 김건희 등의 신예 선수들이 합류했다. 엄격한 선발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린 국가대표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활동하게 된다.

이중 김건희 선수는 현재 만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선수이지만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국가대표에 4위로 선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빙상 불모지인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로는 유일한 경우다. 부산에 국제규격의 빙상장은 한 곳뿐이고, 이마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피해서 훈련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했다.

“북구 덕천동에 있는 빙상장을 훈련장으로 이용하는데 일반인 대관 시간을 피하다 보니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주로 훈련해요. 주말에는 대구, 대전, 경기도 등에 대학부나 일반부 팀과 훈련하러 다녀와요. 부산에는 대학부나 실업팀이 없어 페이스 메이커와 훈련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로 다녀야 했어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국대회가 주로 수도권에서 열리다 보니, 대회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대회장 근처 숙박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선수층이 얇은 종목 특성상 시합할 때도 서로 견제를 많이 하는 편이라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쇼트트랙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대들보

김건희 선수가 처음 스케이팅을 만난 건 10여 년 전이다. 유치원 특별활동으로 스케이팅장을 찾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당시 현장 코치의 조언으로 초등학교 입학 후 바로 쇼트트랙을 시작했다. 이후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9년 전국남녀꿈나무대회에 부산 대표로 나가 2개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전관왕을 차지했다. 이어서 2013년 전국동계체전 여초부 2관왕에 오르다가 하면, 2014년 동계체전에서는 1,500m 부문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렇게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김건희 선수는 꿈나무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국가대표 상비군을 두루 거쳐 국가대표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언뜻 보면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것 같지만, 스스로 개척한 길이기엔 감회가 남다르다.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 “정말 기쁘고 행복했고, 자부심도 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종목 중 하나가 쇼트트랙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조금 있어요. 지난 선수 생활들을 추억해보면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참 즐겁게 운동해온 것 같아요.”

국가대표로 선발되자 학교 친구들도 진심 어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교실에서 축하 메시지와 케이크로 간단한 축하파티를 열 때는 깊은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부산에서 1호 국가대표가 되어보자고 부모님과 다짐하던 순간도 스쳐 지나갔다. “수도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부산에 남아 훈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부산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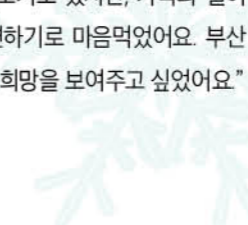
소중한 경험 발판 삼아 금메달 꿈꾼다

현재 김건희 선수는 2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 게임을 준비 중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에 있을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도 얻게 된다. 코너링과 경기운영 능력이 뛰어난 만큼, 앞으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려는 듯 김건희 선수는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계주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예요. 부족한 점을 더 보강하면 평창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꼭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김건희 선수가 속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1월 4일 캐나다에서 열린 2016-2017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했다. 1차 대회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심석희, 최민정, 노도희 선수와 함께 4분 5초 350의 기록으로 앞선 세계 최고기록에서 0.865초를 앞당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차대회에서는 4분 4초 222라는 대기록을 다시 한 번 세웠다. 국가대표팀이 꾸려진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후 3차, 4차대회에서까지 3,000m 계주 금메달을 석권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김건희 선수는 이밖에 1,000m, 1,500m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배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냈다.

“지금은 메달 획득보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지만, 늘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부산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에도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부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에만 매진해온 탓에 그동안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만한 시간도 없었다고 회상하는 김건희 선수. 가족들과 물론대공원에 가끔 소풍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 훈련이 없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또래 아이들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꼭 이뤄야 할 목표가 있기에 매 순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부산을 넘어 세계의 벽을 두드리는 김건희 선수의 금빛 질주가 기대되는 이유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 확립을 위한 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출범



부산시가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 확립과 지역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01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정의

기존 생활체육동호회는 강습과 지도의 부재, 회원 간 강한 멤버십, 종목 관심자의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고, 사실 스포츠클럽은 이윤 추구 목적 또는 높은 참가비용으로 스포츠클럽 가입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자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개별 체육활동 위주로 약한 멤버십 성향을 지녔다. 이와 달리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은 시설, 지도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류하며 복합적으로 멤버십을 형성한다.

특히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은 지역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전문형 클럽이며 광역 내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클럽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연령·다수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클럽으로 정의된다.



02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 운영의 기대효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된 현 시스템하에서 스포츠 선진국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선수육성과 연계되는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체육 참가자가 전문선수의 저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엘리트선수 배출이라는 성과 창출은 필수 요소로 보인다. 특히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연결점이며 지역사회 기반의 선진 체육 시스템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변화된 환경 가운데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트선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의 노하우 및 보유 자원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선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엘리트선수로 육성시켜 국가대표로 배출하며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특히 우수지도자를 확보하고 우수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합형지역스포츠

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스포츠클럽 문화를 정착하고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선수를 육성·발굴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이 지역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전문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과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전문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지역 전문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하고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종목리그·교류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어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체계적인 선수 관리 실시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전문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03

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과제와 전망

유치주체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컨소시엄을 맺어 비영리 민간법인(스포츠클럽)을 설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국비 지원액은 총 24억 원으로 3년간 연 8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 기능을 하기 위하여 전문선수 육성,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지역주민 참여형 공공클럽을 접목시킨다.

운영종목은 역도, 체조, 테니스, 펜싱이 되겠으며 교류방법으로 초·중·고·대·일반부별 정기교류전 및 친선게임을 진행하며 각부별 멘토를 선정하여 기술전수, 심리훈련, 진로상담 등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전용 훈련장을 활용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사상, 송도, 동래)과 부산스포츠클럽과의 상호교류를 추진한다. 선수반 모집방안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연계 추진하는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역량 향상계획으로 기존선수와 육성선수 간의 합동훈련 및 정기 평가전을 진행하고 기술 코칭, 멘탈강화 방법 등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주 1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기초체력강화, 전용훈련장을 활용한

합동훈련, 실전대비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류전 등 기량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전문체육 관리방안으로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과 방과 후 훈련 및 주말 훈련을 병행하고, 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 아카데미 운영 등 운동과 학업을 병행시킨다. 선수관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별 면담일지를 작성하고 효율적인 선수 관리를 위한 주제발표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기타활동으로 등산, 축구, 수영, 족구 등 신체활동을 통한 멤버십을 강화하며 1일 지도자 체험, 타 종목 교환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간다.

04

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운영 계획

1) 초·중·고 전문 엘리트선수 육성 전문 클럽 운영계획

지역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훈련프로그램, 학습지원, 경력관리 및 상담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순회지도, 전지훈련 등을 통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지원과 동시에 팀 간 교류 및 대회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간 교류전·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종목프로그램, 커뮤니티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부산 향토기업 지원을 통한 재정 지원 및 경영·홍보 등 스포츠클럽 경영의 일반적인 지원을 한다.

3) 운동-학습 병행 시스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모델로 제시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여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선수 클럽의 자체적인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고용을 통한 체계적인 선수 이력 및 경력 관리가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 생활체육 프로그램

부산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 운영계획으로는 1차연도에 클럽설립 취지 홍보와 클럽운영 체계 확립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차연도에는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위주로 회원 확대 및 신규 교실을 증설하여 부산시내 동호인 및 회원단체를 영입하고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자체 수익 사업을 개발한다. 3차연도에는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향토기업의 투자를 모색하고 종합형거점스포츠클럽을 안정화하고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초·중·고·연수반으로 구분하여 시민 누구나 역도, 체조, 테니스, 펜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설문조사와 개인별 차트 작성으로 회원관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종 스포츠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지역 스포츠클럽과 교류전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종목별로는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치조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5) 전문선수 유치 및 육성방안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관 및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한다. 학교나 지역 클럽에서 재능은 있으나 금전 부담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청소년 등을 선발하여 클럽에서 전문지도가 이루어지게 진행하며 학업과 병행하여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운동 중 부상당한 은퇴선수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선수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매니지먼트사와 연계하여 훈련, 선수생활, 은퇴 후 취업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클럽의 우수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 전국·소년체전 출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대표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 시설 현황

1.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개요

운영종목	트레이닝시설(헬스장) 및 클럽하우스 운영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사직동)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건립년도	2008. 7.	면적	10,761㎡
시설유형	복합체육시설(지하 1층 ~ 6층)	확보유형	관리위탁

시설 안내

- 실내훈련장 (4층)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농구, 배구, 핸드볼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대형 체육관
- 헬스장(3층) 보디빌딩선수와 각 종목별 대표선수들의 기초체력훈련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개방형 공간
- 대·중회의실(2층) 체육단체의 각종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
- 회원종목단체(3~5층)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 편의시설 주차장 일반주차 95대(지하 84, 지상 11), 장애인주차 3대



회관전경



트레이닝시설 1



트레이닝시설 2



클럽하우스(회관 내)



클럽하우스(테니스장 내)

2. 역도훈련장

개요	운영종목	역도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6 역도훈련장			
	건립년도	1997. 10.	면적	1,001.27㎡	
	시설유형	단일체육시설(2층)	확보유형	관리위탁	

연차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차	목표 회원		강습일	대상
				전문	동호인		
06:00 ~ 22:00	역도 (역도훈련장)	1년차	5명	50명	월 수 금 (레슨) 화 목 (개인운동)	시민 누구나 (전연령)	
		2년차	10명	75명			
		3년차	15명	100명			



3. 체조체육관

개요	운영종목	체조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90			
	건립년도	1985. 8.	면적	1,842.36㎡	
	시설유형	단일체육시설(2층)	확보유형	관리위탁	

연차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차	목표 회원		강습일	대상
				전문	동호인		
06:00 ~ 22:00	체조 (체조체육관)	1년차	10명	50명	월 수 금 (레슨) 화 목 (개인운동)	시민 누구나 (전연령)	
		2년차	10명	75명			
		3년차	15명	100명			



4. 실내테니스장

개요	운영종목	테니스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			
	건립년도	2016. 10. 20.	면적	10,009㎡ (테니스코트 10면 등)	
	시설유형	단일체육시설(2층)	확보유형	관리위탁	

연차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차	목표 회원		강습일	대상
				전문	동호인		
06:00 ~ 22:00	테니스 (실내테니스장)	1년차	30명	150명	월 화 수 목 (개인강습)	시민 누구나 (전연령)	
		2년차	40명	200명			
		3년차	50명	250명			



5. 펜싱훈련장

개요	운영종목	펜싱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거제동) 주경기장 1, 6, 7, 8호			
	건립년도	2011. 9.	면적	948.3㎡(피스트 14면)	
	시설유형	단일체육시설	확보유형	관리위탁	

연차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차	목표 회원		강습일	대상
				전문	동호인		
06:00 ~ 22:00	펜싱 (아시아드 주경기장 펜싱훈련장)	1년차	15명	100명	월 수 금 (레슨) 화 목 (개인운동)	시민 누구나 (전연령)	
		2년차	120명	125명			
		3년차	30명	150명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미리 만나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선수들의 훈련 분위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추운 날씨임에도 굴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부산 선수단의 열정을 살펴보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 선수단의 열정 속으로



SKI

BIATHLON



SKATING

우리나라 최대의 동계 스포츠 제전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올해 2월 9일(목)부터 2월 12일(일)까지 4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에서 개최된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과 시범종목으로 봅슬레이·스켈레톤(스타트), 산악(아이스클라이밍)이 개최된다.



Interview

김영훈 부산시빙상연맹 전무이사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선전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전에 부산대표 선수들이 합동으로 다 같이 자세 및 체력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팅 체력훈련 이후에 지상훈련은 달리기, 사이클, 근력 및 밸런스운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각 개인 지도 코치님들에 의해 개인 훈련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작년 기록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고자 오늘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선수들보다 촉박한 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부산대표 선수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대회를 치르면서 경기능력을 향상·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하여도 부산은 동계 스포츠 불모지라 불렸지만 현재 부산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김건희 선수를 배출하는 등 부산도 동계스포츠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부산에서도 빙상실업팀인 콜핑팀이 창단되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달성한 우리 부산대표팀은 종합 4위를 목표로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열심히 훈련하고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Interview

김동엽 부산시아이스하키협회 전무이사

선수들은 현재 북구 아이스링크와 동래 아이스링크에서 주 2회 훈련하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16년 2월 제97회 동계체전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의 은메달 획득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훈련시간과 장소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걸림돌이 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훌륭한 지도자들이 부산에 있으면서 이런 여건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해외 및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였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남구 제2실내빙상장에서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부산이 타 지역 못지않은 성과와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다가오는 동계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GURE SKATING



Interview

윤설호 부산시스키협회 전무이사

현재 12월 2일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나드리펜션이라는 곳에 숙소를 두어 초·중·고·실업팀 선수 약 25명이 합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경기장이 국내에 한 곳밖에 없고 종목의 특성상 눈이 있는 지역에서 훈련이 가능하여 매년 대관령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대관령에 위치한 알펜시아스포츠파크입니다. 이곳에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알파인경기장까지 함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약 2시간씩 총 4시간가량 스키훈련을 실시하며, 저녁시간에는 자율훈련 또는 근력보강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즌 초반이라 스키적응훈련과 밸런스 및 기본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전국종별선수권 바이애슬론대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주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종목 특성상 눈이 있는 3개월 동안 동계체전을 비롯한 모든 대회를 치러야 하여 선수들은 훈련과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합숙소에는 초등학교생과 중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부산시체육회 코치 2명과 부산시스키협회 자체 시즌코치 1명 등 총 3명이 선수들의 훈련부터 생활, 그리고 안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쉬는 날 없이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고 가족들과 거의 100일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과 일상생활에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종종 영화 구경이나 사우나 등을 통하여 선수들이 몸과 마음 모두 지치지 않고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숙소는 각 학년·성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저학년 숙소에는 코치들이 함께 생활하여 훈련준비, 방학숙제, 청결, 건강관리 등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코치들의 올 시즌 목표와 각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동계종목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전국동계체전에서 부산시가 그 위상에 맞게 많은 우수선수 배출과 메달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알파인 랭킹 1위인 강영서(한국체대) 선수와 크로스컨트리 국내 랭킹 1위 김마그너스(협성르네상스) 선수가 이번 동계체전에도 스키 종목 부산 대표로 출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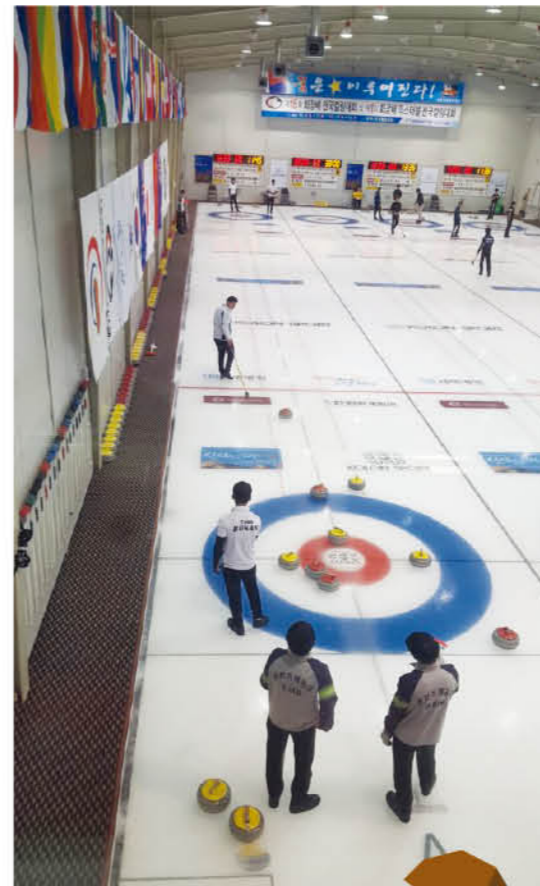


Interview

김주안 선수 배산초등학교 6학년

- 제97회 전국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종목
부산초등학교생 최초 메달 획득
- 올해 2관왕 기대 선수

코치님들, 형, 누나들이 잘해줘서 합숙생활이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코치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친절하게 스키 자세와 코스마다 쓰는 주법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지도를 잘해 주십니다. 이번 시즌 목표는 바이애슬론 개인경기에서 2관왕 수상과 작년 기록보다 30 이상 단축하는 것입니다.



CURLING



Interview

이규현 부산시컬링협회 전무이사

부산광역시컬링협회는 대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창단과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컬링팀을 육성하기 시작한 대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고등학교는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훈련 기간에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동반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전국규모 컬링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고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남자 일반부 부산컬링협회, 여자 일반부 부산컬링협회 등 3개 팀이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을 목표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컬링팀은 매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컬링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여 매년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며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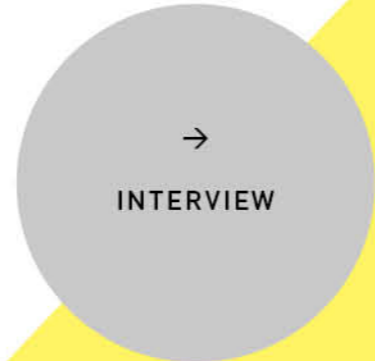
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 선수들은 각각 대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컬링팀 출신으로 대학교 및 직장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컬링이 좋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및 부산컬링협회 남·여 일반부 선수들은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주 3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컬링협회 선수들은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훈련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시간에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정신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제98회 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컬링협회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 부산스포츠클럽 회원체력평가 및 명랑운동회

학부모, 학생, 지도자가 함께 건강한 부산의 미래를 꿈꾸다

지난 12월 17일(토) 부산시체육회관에서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체력평가 및 명랑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중 초등학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명랑운동회로 진행하였다. 체력평가는 민첩성을 측정하는 10m 왕복 달리기, 근력을 측정하는 팔굽혀펴기, 순발력을 평가하는 구름판뛰기, 유연성을 평가하는 좌전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명랑운동회는 줄넘기와 달리기로 구성되었다. 이날, 학부모, 학생 및 지도자가 참가하여 선수로의 기량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부산스포츠클럽 회원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INTERVIEW.01
부산스포츠클럽 이민주 육상지도자



수업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두 타임 진행합니다. 주로 방과 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을 엘리트 선수로 전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학교 체육시간에 필요한 모든 종목인 줄넘기, 뽀름, 멀리뛰기, 매트운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종목이다 보니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면, 선생님들이 보고 전문선수로의 전향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학부모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스포츠클럽 육상부를 알고 오시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회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대기자만 하여도 11명입니다. 이렇게 부산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학생들이 신인발굴대회 또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엘리트로 전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은 계속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아이들이 들어와서 실력이 향상되어 엘리트 선수로 전향되고, 국가대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올해 육상을 지도한 지 9년 차가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저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이들처럼 생각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저를 많이 믿고 따르는 편입니다. 직접 마라톤도 하고 있으며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에서 여자 10km 강자로서 10년 연속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록을 유지하는 데는 매일 아침 동백섬 달리기로 시작을 하는 습관이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운동은 즐거움이 있어야 더욱 잘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INTERVIEW.02
육상종목 참가자 3학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었지만, 작년에 학교에서 시합이 있어 참가하였는데, 그때 1등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상은 달려서 상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육상의 매력은 체력이 좋아지고 상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육상을 하고 싶습니다.

INTERVIEW.03
부산스포츠클럽 김진아 수영지도자

방학 때마다 캠프를 진행해 왔으며 체력평가 및 명랑운동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종목 특성에 맞는 종목 전환 유도도 하고, 맞는 특성종목을 찾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유연성, 순발력 등 자신의 체력을 확인하여 종목선택 기회를 넓혀주고 무료수업을 받아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체조와 수영영재교실은 2015년도에 시작하였으며 엘리트 선수로 많이 전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재교실 회원이 되려면 기초종목 챌린지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여야 하고 영재교실에서 전문성수로 육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INTERVIEW.04
부산시수영연맹 정지영 지도자

몸이 허약해서 수영을 시작했다가 재능이 있어서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다른 길이 많이 열리니까 그 길을 생각하였을 때 운동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방학 직전, 챌린지수영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은 지상훈련, 물속 훈련, 체력훈련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INTERVIEW.05
수영영재

» 거제여자중학교 1학년 반근희 선수
작년에 챌린지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담당하는 코치 선생님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꿈은 체육교사인데, 오늘 저의 좋은 기량을 발휘하여 실력을 뽐내고 싶습니다.

» 체육중학교 1학년 손선아 선수
수영왕중앙전에 나가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사직수영장의 선수반에서 1달 정도 지도를 받았습니다. 올해 체육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꿈은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년체전에 참가하여 실력을 확인해 보고 재능을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INTERVIEW.06
부산시체조협회 최봉원 지도자

체조챌린지대회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과 부산스포츠클럽의 체조종목 친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종목의 교류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종목별로 교류를 하여 각 종목에 대한 선수 및 특기생 전향 부분들을 보고, 종목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수급의 문제, 메달 획득의 기회, 성적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종목교류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NTERVIEW.07
동주대학교 최기준 스퀘시강사

스쿼시는 단기간에 실력이 늘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몇몇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주대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체험을 하러 왔다가 꾸준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일반회원 모집을 통하여 자녀들도 같이 와서 접하게 됩니다. 수업은 학교 스퀘시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에 맞춰서 수업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교류의 기회에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08
양궁

» 모덕초등학교 6학년 박정인
선생님의 권유로 2015년도에 양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정말 매력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양궁장에서 코치를 받고 지금은 양궁에 대한 흥미가 커서 중학교 진학도 고려하여 체육중학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모덕초등학교 6학년 주우진
전국양궁대회에 거의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꿈입니다. 오늘 참가한 다른 종목의 선생님들과도 교류의 기회가 되어서 좋고, 다양한 종목들도 알아가고 싶습니다.



2016
부산스포츠
클럽 회원
체력평가 및
명랑운동회



2016 부산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

미래지향적인 부산체육의 방향 설정

지난 12월 28일(수) 코모도호텔에서 '2016 부산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다. 그동안 부산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우수단체를 시상하여 부산체육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부산체육이 발전적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

지난 12월 28일(수) 코모도호텔에서 '2016 부산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우수단체를 시상하여 부산체육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부산체육, 어제의 50년, 내일의 무한 가능성」을 주제로 영상물이 상영되었으며, 본회 임직원,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부산체육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및 단체 등 분야별로 시상되었다.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부산광역시시장상, 부산광역시체육회장상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와 부산체육을 위해 재정기여도가 높은 기업, 국내종합대회 성적 및 각 대회 개최·참가 등 활동이 우수한 단체 등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시체육회의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은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체육 연찬행사가 되고 한 해 동안 부산체육 활동상을 검토하며 미래지향적인 부산체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부산체육이 발전적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 부산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11:00 장소 :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 부산광역시체육회



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은 “오늘, 상을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기쁘시겠지만,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만큼 올 한 해 우리 부산체육계가 다 함께 최선을 다했고 결실들도 풍성하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1년간의 성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산체육계를 돌아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체육회 통합을 순조롭게 이뤄냈고, 각 종목별 체육단체도 원만하게 통합해서 부산체육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도, 전국체전에서도 부산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빛냈습니다. 실업팀 창단에 동참하신 기업들과 후원해주신 기업들까지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더욱 든든한 발전의 토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산체육이 올해 마련한 기반들을 바탕으로, 대망의 2017년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체육회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제4차 이사회

체육회 발전 위한 예산·규정 등 심의·의결

지난 12월 16일(금)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가 개최돼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수탁 현황보고 등 주요업무 보고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심의가 있었다.



Board of Directors



체육인 지원 위한 심의 이어져

심의 안건으로는 기정 예산 중 국비 지원 등으로 절감된 예산 및 변경된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한 실행 예산 편성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일부 개정(안)과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이어서 시체육회 경기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지도여건을 가지고 선수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과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다.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4대폭력에 대한 개념 및 성 평등 의식 함양

시체육회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지난 12월 6일(화)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해 폭력 예방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해 올바른 인식 함양

이번 교육은 성 평등 관점에서 총론교육과 개별교육(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이 균형 있게 실시되어 예방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성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의식을 함양했다. 또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가정폭력 방지·대응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리자의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직장상사 및 상급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폭력 예방을 위한 총체적 실천전략 수립,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규정 및 고충 상담창구 운영 안내,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설명이 있었다.



침묵 아닌 문제의식 공유가 가장 중요

이날 강의를 진행한 성·건강가정상담소 이현선 소장은 "여성복지실천현장에 근무를 하고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면서 최근까지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재판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폭력 사건들도 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 몇몇 행위에 대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보다 훨씬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수준으로 해당 행위를 묘사합니다. 사건 지원 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기억의 왜곡이 악의적이며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억이 재구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억의 왜곡은 왜 발생하는가?', '같은 경험을 하고도 다른 언어로 정의하는 인식의 차이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왜 그런가?' 등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는 것은 (성)폭력을 어떻게 보고, 정책과 법을 만들어 가는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성)폭력피해자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서 교육을 받은 내용으로 신고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함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을 하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라고 피력했다.



INFORMATION

●●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수반하는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 크게 광의의 성폭력과 협의의 성폭력으로 나누어지는데, 광의의 성폭력이라는 개념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한다. 협의의 성폭력은 강간 및 유사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1990년대 이후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주도해 온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 여성주의 운동의 목표는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포함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젠더 폭력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폭력 개념을 섹슈얼리티로 봤다. 즉, 성적인 것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의미하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내에 대한 단순 구타까지 포함하는, 성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립한 적도 있다.

성폭력 개념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자가 채택되었으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펼쳐져 온 여성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전자는 한계·후퇴로, 후자는 목표·진보로 널리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영국의 여성학자 리즈 켈리가 말한 '연속선으로서의 성폭력'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성적 관계들과 실천들도 사실은 여성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식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며, 현행법과 사회 통념이 규정하는 성폭력의 협소한 정의를 비판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피해자들은 명시적인 거부 포함하는 강력한 저항을 했을 경우에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지만, 이는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이고 협소한 해석이다.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해진 성적 행위는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폭력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너머까지 확장하는 것, 심지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모든 성적 관계들과 실천들을 필요에 따라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개념은 대중들이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과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반성폭력 운동은 연속선으로서의 성폭력 개념을 폐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의 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인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주제로 세워낼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2016 체육지도자연수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스포츠 안전 중요성 인식

시체육회는 지난 12월 8일(목) 아시아 드시티 2층 연회장에서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후 대처 교육을 위한 '체육지도자연수회(이하 연수회)'를 개최했다.



스포츠안전, 선택이 아닌 필수

연수회 내용으로는 1·2부로 나누어서 2017년도 체육회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스포츠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사고 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스포츠안전교육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 진행된 체육회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의 주요 내용은 최저 지원금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 체계를 등급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2부에 진행된 스포츠안전교육에서는 스포츠안전의식변화, 스포츠안전실무, 응급처치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스포츠안전재단의 한아영 강사는 스포츠 안전의식변화를 주제로 스포츠안전상식과 안전에 대한 동영상 상영, 스포츠 안전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스포츠안전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포츠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스포츠안전실무 강의에서는 스포츠활동에서 개인 또는 외부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적절한 처치를 돕는 모든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스포츠안전재단의 정근남 강사의 응급처치법 강의에서는 응급처치 학습의 필요성과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심정지 조기 발견과 예방,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응급처치법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일군 빛나는 성과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우리 부산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목표인 종합 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성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도자 및 종목단체 여러분들의 뛰어난 지도와 후원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도자 여러분의 사기 진작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영광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선수 육성이나 종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연수회가 지도자 여러분들이 현장지도를 할 때나 종목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INFORMATION

●● 심정지 조기발견과 예방

< 심장마비의 전조증상 종류 >

1. 극도의 피로: 심장마비 발생 며칠 전이나 심지어 몇 주 전에 몸이 쇠약해지고 독감 증상과 비슷한 탈진을 겪음
2. 가벼운 고통: 가슴 부위에 국한하지 않고, 흉골이나 등 윗부분, 왼쪽 어깨, 목, 턱, 잇몸, 치아 등에 압박감, 통증 느낌
3. 땀 분비 증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적셔지고, 창백해지거나 잿빛으로 변함
4. 메스꺼움과 어지럼증(두통): 심장마비 전에 소화불량을 겪거나 구토를 할 수 있음 또한 금방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증상을 느끼기도 함
5. 숨 가쁨: 숨을 헐떡이거나 호흡을 가다듬기 어려워 대화할 수 없을 정도임
6. 불면: 심장마비가 오기 몇 주 전부터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잠에서 깬
7. 불안감: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과 함께 심장마비 전에 절박한 파국의 느낌이나 공포를 겪음

●● 어떻게 하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을까?

< 해야 할 것 >

- 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 ② 긍정적으로 살자.
- ③ 정기적인 검진을 받자.
- ④ 여가를 즐기자.
- ⑤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조기에 치료하자.

< 하지 말 것 >

- ① 짜게 먹지 말자.
- ② 과식을 하지 말자.
- ③ 담배는 무조건 피우지 말자.
- ④ 혼자 판단하고 치료하지 말자.
- ⑤ 과음을 하지 말자.



아디다스, 부산시에 체육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부산지역 올바른 스포츠 문화 확립·활성화 목적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난 11월 21일(월) 부산시청에서 지역 내 올바른 스포츠 문화 확립·활성화와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4월 17일에 개최된 '2016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일부를 기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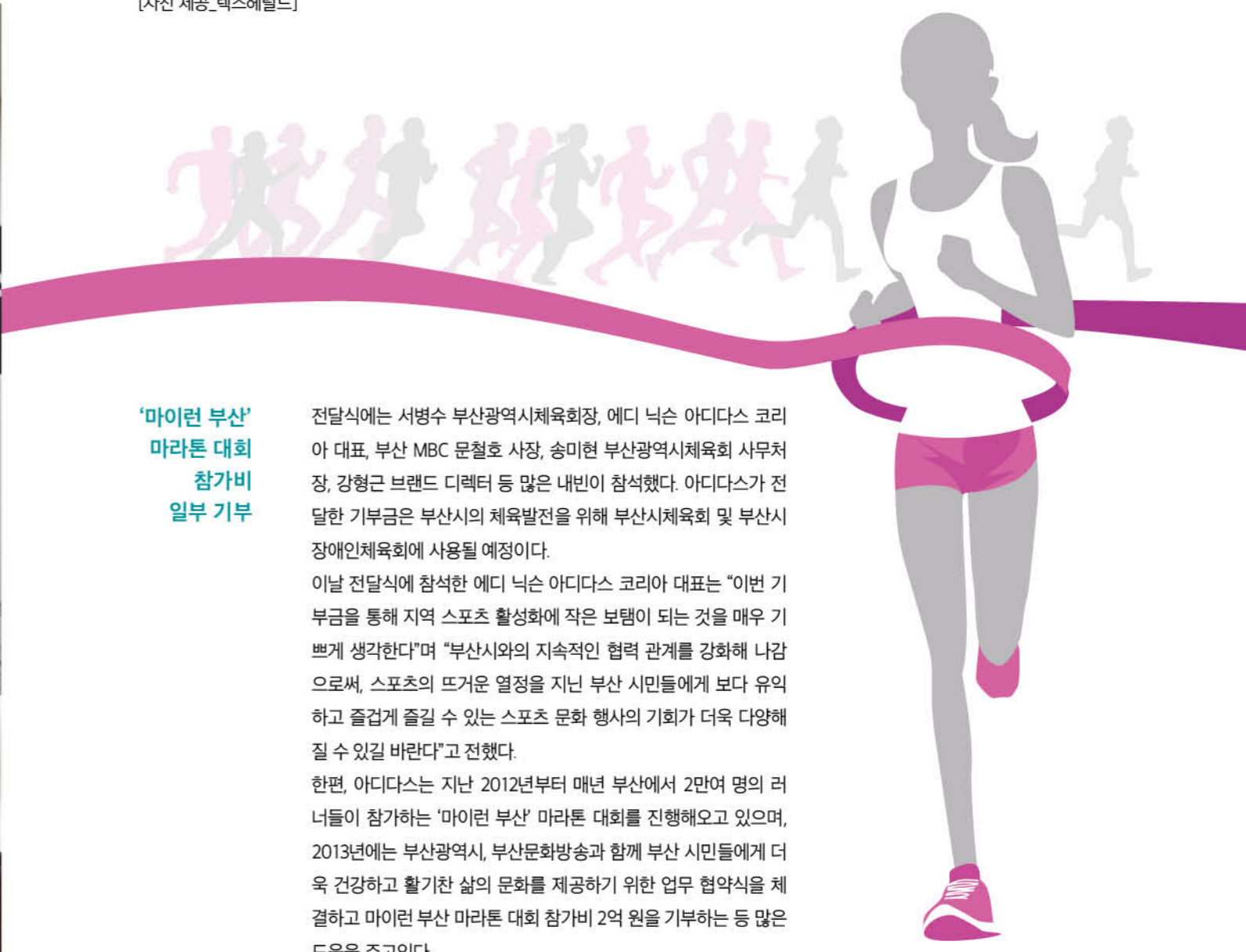
[사진 제공_텍스헤럴드]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일부 기부

전달식에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에디 닉슨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 부산 MBC 문철호 사장,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강형근 브랜드 디렉터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아디다스가 전달한 기부금은 부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부산시체육회 및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에디 닉슨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 기부금을 통해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산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서, 스포츠의 뜨거운 열정을 지닌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행사의 기회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2만여 명의 러너들이 참가하는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부산문화방송과 함께 부산 시민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28개 학교 117명 꿈나무들의 열띤 도전

제2회 꿈나무 체조챌린지대회

지난 11월 26일(토) 사직체조체육관에서 제2회 부산꿈나무 체조챌린지대회(이하 챌린지대회)가 개최되었다. 기술, 체력, 유연성 등 총 3개부 72개 세부종목에 28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종목, 체조

부산의 희망찬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우수한 체조 꿈나무를 선발·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챌린지대회는 작년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6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비전문선수들이 출전하는 챌린지대회는 전문 선수들이 참여하는 체조대회와는 달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력 부문을 겨루었다. 측정종목은 뒹뒹·평군대·철봉과 같은 기본기술 부문과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등의 체력부문, 좌전굴·고무줄 돌리기 등 유연성 부문 등 3가지 부문으로 순위를 가렸다.

학생들이 펼쳐나갈 건강한 미래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체조는 수영, 육상과 더불어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종목이다. 일선 학교에는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체조 전문선수로 육성하고자 한다. 체조종목은 물론이고 다른 종목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에 선수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선수 발굴 체계를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경훈 부산광역시체조협회장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는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챌린지대회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부산의 체조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체조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챌린지대회 개최를 통해, 체조가 ‘즐거운 체조’, ‘재미있는 체조’로 인식함은 물론, 향후 엘리트 체조선수 수급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여, 내 고장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INFORMATION

●● 체조용어 제대로 알기

도마(남)

단체경기는 1차 시기 결과로 평가되며 결승경기 참가자는 1, 2차 시기에서 뛰기 그룹이 상이한 연기를 실시하며 결승 경기 참가자는 1, 2차 시기에서 뛰기 그룹이 상이한 연기를 해야 한다. 도마의 길이는 95~105cm, 너비 95cm, 높이 135cm로 되어 있는 말을 도움단기 하여 두 다리를 모아 발 구름한 후 한 손 또는 양손을 기구에 짚고 뛰어넘는 경기이다. 도마에서 신체의 두 축을 중심으로 1회 또는 복합적인 비틀기 동작을 포함한다. 도움단기 거리는 25m 이내로 제한되며 연기는 2.0~7.0점까지의 기술 가치점이 정해져 있다.

도마(여)

도마 높이는 125cm로 구름판에 양발을 밟은 후 도마 위에 양손을 짚고 튀겨서 연기하는 종목으로써 구름판을 밟기 전에 한 가지 요소 이상의 동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마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채점규칙에 시착점수가 나와 있는 기술을 2.40~7.10까지의 가치점으로 되어 있다. 연기 종목 표시 번호를 주심에게 보이고 실시하며, 단체경기 및 개인 종합 경기에서는 1번 뛰기로 득점이 인정되고 종목별 결승 경기에 진출 선수는 단체경기 시, 서로 방향이 다른 공중돌기를 포함하여 2차 시기까지 연기한다. 종목별 결승경기는 2회의 다른 뛰기 득점을 평균한다.



당구 선수 육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

당구전용훈련장 개소식 및 3쿠션 대회



10



지난 12월 6일(화) 부산당구선수들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당구 전용훈련장이 조성되어 지역 주요인사와 부산 체육계 인사 및 당구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당구전용훈련장에서 개소식 및 3쿠션대회를 개최했다.

4

6

11

국제경기 규격 대대, 중대 등 쾌적한 환경 조성

부산광역시 당구전용훈련장은 그 동안 흠어져 각자 훈련을 하던 부산당구선수들의 훈련장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마련된 시설이다.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이정운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최대의 당구전용훈련장이 오픈되었습니다. 이 터전을 발판삼아 학교체육의 저변을 높여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선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현재 훈련장에는 국제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대대 10개, 중대 2개, 포켓볼을 훈련할 수 있는 포켓대 4개, 부산지역에서는 희귀한 스누커대 2개 등 당구대 18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에어컨·제습기·청소기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도 갖췄다.

시체육회에서는 이번 훈련장이 조성되면서 선수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구전용훈련장 개소가 부산 당구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전국적인 당구대회를 유치하여 당구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참가한 선수 중, 18세 이하 세계여자스누커대회 준우승,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고등부 우승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신정고등학교(2학년) 박정민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달 동안 호주에 갔다가 스누커를 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뉴질랜드로 가서 공부도 하면서 대표팀과 당구 시합을 하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내년에는 영국의 대학교로 진학하여 대학부에 있는 당구팀의 소속이 되어 훈련과 연습을 하며 학업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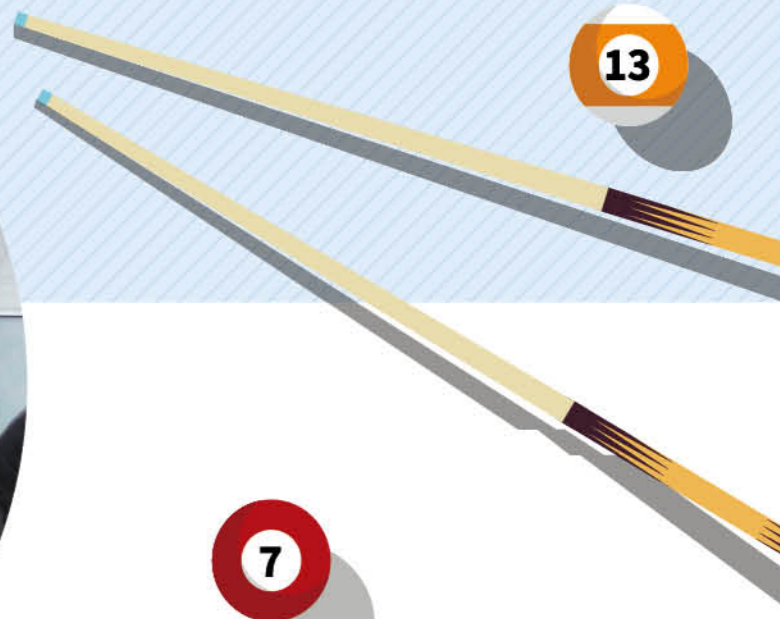
1

12



13

7



더 나은 내일 다짐하는
따뜻한 화합의 장

구·군체육회 송년의 밤



부산시 각 구의 체육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체육인들을 위해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한자리에 모인 각 구의 체육인들은 행사를 통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등 따뜻한 화합의 자리를 함께했다.

1. 동구체육회

동구체육회는 지난 12월 8일(목) 노블리아뷔페에서 한 해 동안 동구지역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체육회 임원과 체육 지도자, 선수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6 동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대회 출전 입상자와 종목별 유망주를 선별하여 훈련비 및 표창을 수여하였다. 표창 대상자는 전국규모대회 입상선수, 관내에 연고를 둔 자로서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우수선수 및 단체를 길러낸 감독 및 지도교사가 대상이 되었다. 이어진 연회에서는 체육관계자 격려 및 동구청의 직원 동호회의 색소폰 공연도 선보였으며, 동구민의 화합과 동구체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2. 영도구체육회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9일(화) 영도목장원에서 '2016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체육회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영도구 회원 종목 동호인, 장애인선수단, 꿈나무선수단 등 관내 남녀노소가 두루 참여하여 체육인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인터뷰>

- 365일, 많은 경기를 치르며 체육에 올고, 웃었던 영도구 체육인 모두의 화합과 그리고 한 해의 노고와 결실에 대하여 격려하고 축하하며 존경의 박수를 보낸 현장이자, 또 한 단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발판이 된 체육인 모두의 가슴속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2016년도 마무리와 함께 시작되는 2017년도 영도체육! 밖으로는 부산의 16개 구·군을 넘어서 대한민국 모두가 본받고 싶어 하는 체육단체로 거듭 발전을 꾀할 것이며, 안으로는 영도구민 하나하나가 소외됨 없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며 건강한 체육인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영도구체육회의 체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3.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0일(화) 허심청에서 '2016 동래구체육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래구체육회 이사, 대의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동래구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6년 추진사업 성과를 되돌아보며 친목을 다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는 2016년 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사)동래구체육회·동래 K-스포츠 클럽의 2016년 추진사업 성과보고로 진행되었으며, '동래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방안'과 '동래구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4. 남구체육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12월 6일(화) 남구 누리아라뷰페에서 '2016 남구체육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한 해 동안 남구체육회의 활동상을 돌이켜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남구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체육인들의 노고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남구체육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남구 체육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남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다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5. 사하구체육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2월 30일(금) 하단 시에나뷰페에서 '2016 사하구 체육인 통합의 밤'을 개최했다. 2016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하체육회 임원 및 이사,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노고에 감사를 취하며 사하구 체육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하구 체육인 통합의 밤'을 통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체육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사하구체육회 지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 계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사하구체육회 임원, 이사 및 산하단체 임원과 함께하는 송년회로 사하구 체육인이 화합·단결·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7일(토) 금정문화회관 연회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2016 금정구체육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정희 금정구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임원, 이사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1년 동안 금정구 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에 공로가 컸던 유공자에 대한 구청장상, 국회의원상, 구의장상을 표창하였다. 이번 송년의 밤은 임직원들이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향후 금정구체육회의 발전 방향과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아울러, 다가올 2017년에도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금정구체육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7. 연제구체육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3일(화) 다이아몬드호텔 대연회실에서 '2016 연제구체육회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은 종목·클럽별로 함께 어울려 사회적인 용화를 모색하고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과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할 원동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호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의 중심축 역할, 2016년 생활체육평가 및 생활체육구심 역할, 생활체육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목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8. 수영구체육회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5일(목) 아쿠아펠리스호텔에서 '2016 수영구체육회 송년회 겸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신임이사의 위촉장 전달식과 수영구체육회의 활동영상 시청, 생일 축하 및 케이크 절단, 기념촬영, 건배 제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 해 동안 수영구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수영구체육회 이사와 직원들이 다가오는 2017년 체육발전을 다짐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9. 사상구체육회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6일(금) 구덕민속촌에서 임직원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임직원 상호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6 사상구체육회 임시총회(송년의 밤)'를 개최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더욱더 힘찬 도약을 기원함으로써 사상구체육회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3회 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화합 도모와 스트레스
해소에 유익한 생활스포츠

지난 11월 25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4일간, 아시아드볼링경기장에서 '제33회 부산광역시 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볼링 경연의 장이기도 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볼링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조성두 볼링협회장은 "볼링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과 함께 화합을 도모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좋은 생활스포츠입니다. 또한 볼링은 기록종목으로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때문에 정신적 수양 측면에서도 더욱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는 33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큰 대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날 볼링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볼링인의 볼링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모범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협조해주신 양 단체 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대회를 전했다.



2016 협회장배 정구대회

정구 동호인 간 화합과 우의
다졌던 소중한 시간



지난 12월 4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16년도 종목별선수권대회 및 회장배 클럽대항 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선수 간의 우의와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정구협회 박용수 회장은 "부산시정구협회와 정구연합회의 통합으로 오늘 회장배대회와 종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사직실내테니스장 개장을 기념하고 초등학교 어린 정구선수부터 80대 노인장 선수까지 모든 연령의 선수가 참여하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회를 전했다.

이어서 영산대학교 정구팀 감독은 "2013년도에 영산대학교 정구팀을 창단하였습니다. 선수들은 학과 수업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위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새벽이나 주말에 훈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시정구협회장배대회는 클럽대항전으로 하고, 학생부는 종별선수권 대회로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부는 동호인으로, 학생부는 엘리트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며, 현재 동호인부는 장년부 40대 1부, 50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구종목의 저변이 작다 보니 실력대로 A·B·C·신인 조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구 종목의 장점은 공이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공을 칠 때 소리가 좋으며 공과 라켓이 부드럽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랠리가 오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구 동호인 상호 간에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제38회 동계 후쿠오카 주니어 기록 인정 수영대회



한·일 수영 꿈나무들의 실력 향상과 수영연맹 교류의 장

지난 12월 3일(토)부터 12월 5일(월)까지 3일간, 후쿠오카 서시민수영장에서 '제38회 동계 후쿠오카 주니어 기록 인정 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어린 꿈나무 선수들이 양국의 견문을 넓히고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실력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부산시수영연맹과 후쿠오카시수영연맹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수영연맹의 정연송 회장은 "제38회 동계 후쿠오카 주니어 기록 인정 수영대회에 초청해주신 후쿠오카시수영연맹 아마즈미 회장님과 후쿠오카현 수영연맹의 후나키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대회가 38회째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부산과 후쿠오카 수영연맹 간의 교류도 3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앞으로 한국과 일본 수영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선의의 경쟁으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2016 추계 협회장배 여성클럽테니스대회

시민 건강 증진의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지난 12월 1일(목)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이하 실내테니스장)에서 '2016 추계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장배 여성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실내테니스장 개장 첫날 대회가 진행되어 동호인들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테니스운동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테니스협회 김영철 회장은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께 깊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 여러분의 협력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내테니스장 개장의 의미는 테니스로 부산의 위상을 키우고, 시민 건강을 키우고, 미래 희망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 효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라고 대회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날 참가한 금강클럽 소속 박명자 동호인은 "사직동에 실내테니스장이 조성되어 무척 좋습니다. 20년 넘게 테니스를 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다수 차지한 클럽의 멤버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이 조성되기 전에도 사직리테니스장에서 계속 테니스를 해 왔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트시설 이용비용이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4회 시장배 영남권 어울림 한마당 파크골프대회

지난 12월 17일(토) 삼락다이나믹파크골프장에서 시민건강과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행복을 위한 '제4회 부산광역시시장배 영남권 어울림 한마당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민골프라 불리는 파크골프는 세대, 지역, 나이, 성별, 소득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3대가 함께 즐기는 유일한 가족스포츠로, 이용자의 87%가 서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적, 경제적 접근이 어렵지 않아 일상 속의 생활스포츠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1회 시장배 즐넙기대회



지난 12월 18일(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부산광역시시장배 즐넙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운동이 부족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즐넙기를 통하여 기초체력 향상과 즐넙기 운동을 보급시키고, 생활실천 습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운동 부족에서 오는 비만 및 성인병을 예방함으로써 부산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은 물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체력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부산·후쿠오카 친선교류 승마대회



기술력 향상과 양국 스포츠 교류에 이바지하기를 기대

지난 12월 16일(금)부터 12월 19일(월)까지 4일간, 후쿠오카현 도립 승마경기장에서 부산, 후쿠오카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 및 국제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양국 스포츠 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6 부산-후쿠오카 친선교류 승마대회'가 개최되었다. 내년에는 부산에서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또 한 번 단합된 경기력을 선보이며 페어플레이 정신이 바탕이 되는 멋진 경기를 기대해본다.

2016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및 ASIA OPEN ASIA YOUTH CHEERLEADING CHAMPIONSHIP



지난 11월 5일(토)부터 11월 6일(일)까지 2일간 거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6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한 대연초등학교·동궁초등학교·대연중학교·동아중학교·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팀 등 총 5개팀이 출전하여 동아중학교팀이 '중등스탠트코에드' 부문에서 3위를 입상하였다.

이어서 같은 시각 18개국이 함께한 '2016 ASIA OPEN ASIA YOUTH CHEERLEADING CHAMPIONSHIP'에 참가한 부산시치어리딩협회 공식시범단 뽀뽀팀은 'Peewee Hippo Doubles' 부문에서 1·2·3위를 하였고 'Small Peewee Team Cheer Pom' 부문에서 2위를 수상하였다.

부산광역시·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부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우수평가

종합청렴도 7.41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 차지(2016.12.07.)

부산시가 지난 12월 7일(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7.41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다.

이에 4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음으로써 청렴도 상위권에 안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실제 광역 지자체 중에서 4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은 곳은 부산시 등 2개 시·도에 불과하다.

올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청렴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청렴'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로 비춰진다.

특히 올해 부산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시민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익명보장 공직비리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공직비리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클린업 워크숍, 투명사회 원탁회의, 청렴문화봉사단 발대 등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통해 청렴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신고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권익위 관계자 초청 직원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배부는 물론, 퀴즈로 풀어보는 청탁금지법 운용, 웹툰형 홍보물 제작,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캠페인 전개, 청탁금지법 홍보 컬러링 도입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연수원 초청 청렴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 직원들에게 청렴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펼쳐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복한 '청렴부산' 구현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면서 "올해의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

문체부·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 합동 감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정조사와 향후 특검 시 적극 협조 (2016.11.2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3일(수)부터 12월 7일(수)까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합동조사반은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사항인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규정 위반과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과 대한승마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2016년 11월 17일(목)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최대한 규명했다.

2

제6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개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 채택(2016.11.29.)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공공·금융기관 등의 후원 지원을 촉구 및 권유하는 결의안을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관심과 후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부부처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금융기관의 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비용 조달, 각종 금융거래, 자금의 안전한 보관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후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3

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문체부 제2차관,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4

취임 후 첫 번째 방문지로 평창, 강릉 찾아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2016.12.0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은 12월 2일(금), 취임 후 첫 번째 정책 현장 방문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과 강릉을 찾아 대회 시설과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유 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주사무소에서 조직위로부터 올림픽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개·폐회식이 열리는 현장을 방문해 대회 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유 차관은 "이 힘든 시기에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성숙한 선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 강원도, 조직위가 협심하여 올림픽 준비에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강릉에 위치한 올림픽 빙상 경기장으로 이동하여, "대회시설을 건설하고 경기를 운영할 때는 항상 선수와 관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패럴림픽이 선수 편의와 관중 참여, 홍보 등에서 올림픽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예산 반영을 비롯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력 확충을 통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예산집행 행위 적발

5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소에서 2억여 원을 사적으로 집행(2016.12.0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조치를 시행하였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전(前) 축구협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축구협회는 ○○○ 전 축구협회장과 자문 계약을 하고, ○○○ 전 축구협회장이 비상근 임원임에도 보수성으로 매월 5백만 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 4천4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절한 곳에서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계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의 환수, 징계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하였다.

문체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17년도 최우선 과제 추진'

6

장관 직속 지원단 발족, 문체부 업무 전반에 걸쳐 평창 연계성 강화 조직위-강원도-정부 등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업 추진(2016.12.1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13일(화),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17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지원단'(이하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내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홍보 등의 사업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통해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평창올림픽지원단, 평창조직위원회와의 체계적 역할 분담

평창올림픽지원단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우선 1단계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홍보 4개 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단장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총괄하는 체육정책실장이 겸임한다.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평창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스포츠 행사, 성화 봉송 등 대회 공식행사 및 주요 계기 문화행사를 행사를 담당하고, 평창올림픽지원단은 업무 추진 범위를 넓혀가면서 문체부 업무 전반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콘텐츠·관광올림픽 성공 지원 및 범부처 협업과 소통에 집중하는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나가기로 하였다.

범정부-국회 등 국가적 차원의 연계 지원 추진

또한 평창올림픽지원단은 문체부 내부적으로는 부서 간 횡적 협업과 소속·산하기관과의 협업을, 대외적으로는 평창조직위원회 및 강원도 등 지역 차원, 유관 기관, 민간 간 추진 사업을 총괄·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는 대회 관련 주요 정책 및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와 국회 차원에서는 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본격 착수

7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6.12.1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15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 협의체인 총장협의회와의 기능 강화, 초·중·고교 체육특기자들의 체계적 학사·진학 관리를 위한 학교체육진흥 전담 조직 설립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체부와 교육부, 대학 측이 함께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정상화 방안이라는 대주제하에 ▲대학스포츠 내실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역할과 비전(하용용, 한국체대 교수), ▲체육특기자 선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박진경, 가톨릭관동대 교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허정훈, 중앙대 교수), ▲한국형 통합 스포츠시스템의 가능성(전용관, 연세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앞으로 체육특기자 육성 정책을 비롯한 학교체육의 건전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정책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나갈 예정이다.

자연에서 겨울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제주에서 만끽하는 레포츠의 세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내며
전국 여행객의 발길을 이끈다. 한겨울에 들어선 제주는 어떤 매력을 품은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제주의 대표 레포츠를 즐기며 자연이 선사하는 여유를 마음껏 누리보자.

[자료 제공_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가라면,
ATV (All-Terrain Vehicle)



제주의 산과 들을 마음껏 달리고 싶다면 ATV 체험이 제격이다. ATV는 'All-Terrain Vehicle'의 약자로, 어떤 지형이든 가리지 않고 주행이 가능한 레저·농업용 차량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륜구동식이며 도로가 없는 오프로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이 펼쳐진 제주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레포츠 중의 하나다. 조작이 간편하고 특수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도 ATV의 장점이다.



ATV 체험장을 찾으면 가장 먼저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체험장에 마련된 안전한 장소에서 조작법과 주행요령을 꼼꼼히 익혀야 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과 보호대 같은 간단한 안전장비도 착용한다. 오프로드를 달리다 보면 땀과 오염물에 쉽게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복장은 간편하고 활동하기 편안한 것이 적당하다. 바람과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할 고글을 챙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신발은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화나 목이 긴 등산화 등을 신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준비 후 본격적인 주행해 나선 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험한 길을 달리는 ATV의 특성상 조금만 방심하면 차체가 기울어지거나 핸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주운전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말과 교감하는
힐링 체험, 승마



평소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승마도 제주도에서는 즐거운 놀이가 된다. 너른 벌판과 크고 작은 오름이 이어지는 제주를 말이 지내기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췄다. 제주 전역에 걸쳐 승마장이 조성된 만큼, 실내승마장, 국제규격 승마장, 감귤밭이나 해변을 따라 이어진 코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다.

말을 빼고는 제주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제주마는 제주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승마는 고대에서부터 전 인류가 즐겨온 스포츠로, 근래에는 승마 인구가 점차 늘어나 대중화에도 진입한 상태다. 승마는 관철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높이는 전신 근력 운동이므로 평형성과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자세교정 효과가 있어 탄력 있는 몸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승마를 통해 자연환경에서 동물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정서적 만족을 얻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승마가 주목받는 이유다.



평소 승마를 즐기는 마니아라면 코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초보자라면 안전요원과 함께 승마장 내에서 체험하는 것을 추천한다. 말은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므로 승마 시 주의할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말에게 접근할 때는 말의 왼쪽에서부터 사선 방향으로 다가가고, 이름을 부르는 등 사람이 다가간다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승마 중에는 말이 그림자나 작은 소리에도 놀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헬멧을 꼭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제주 바다를 누비는
요트투어와 잠수함

제주 바다를 좀 더 우아하고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요트투어를 떠나보는 게 어떨까. 카약, 윈드서핑, 패러세일링, 스노클링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요트투어와 잠수함 체험이 인기다.

요트는 크지 않은 선체에도 각종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바다 위의 호텔이다. 쪽빛 바다를 향해하면서 바다낚시, 뷔페, 영화 감상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돌고래떼를 만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관찰할 수 있으며, 개체 수는 약 110여 마리에 달한다.



돌고래 생태관광은 돌고래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다. 돌고래를 만나게 되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 등을 피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돌고래의 야생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돌고래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신호나 음파를 보내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돌고래떼로부터 4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진로 방해 없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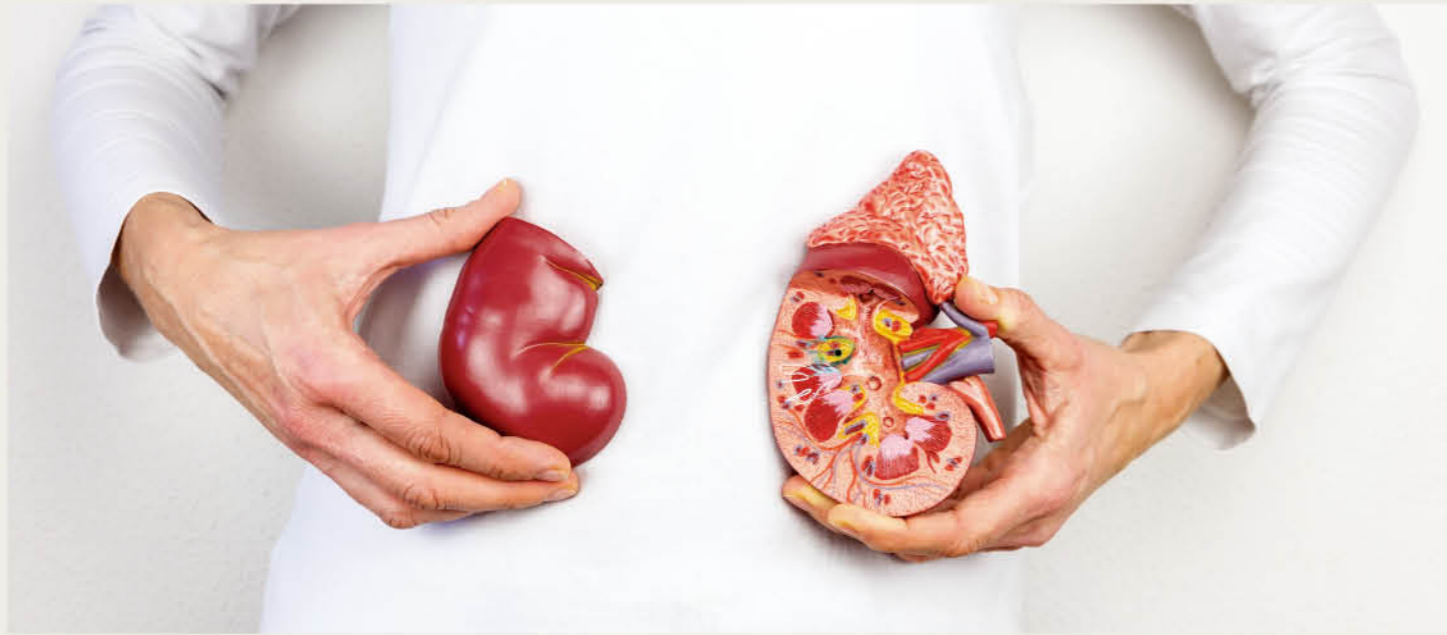
잠수함 체험은 해저세계를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색 즐길거리다. 우도, 마라도, 문섬 등 아름다운 해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잠수함이 운행 중이므로 선택의 폭도 넓다. 해저 높이별로 달라지는 코스에 따라 각종 해조류, 토착어종과 열대어, 다이버 쇼, 산호 군락지 등 각양각색의 바닷속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사진제공_제주관광공사]



건강한 신장, 우리 몸을 구한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는 만성콩팥병

신장은 자동차의 연료필터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고 온 혈액을 정화해주는 장이다. 몸속 장기 중 유일하게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평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몸의 파수꾼, 신장

아랫배의 등 쪽 깊은 곳에 척추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2개의 신장은 흔히 '콩팥'으로 불리기도 한다. 강낭콩 모양을 닮은 데다 팔처럼 적갈색을 띠기 때문이다.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신장은 전체 체중에서 0.5%를 차지하는 작은 크기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폐물 배설 외에도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일 또한 신장이 담당한다.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산·염기, 혈압, 온도, 전해질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수분과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몸의 항상성

을 유지해준다.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는 것도 신장이 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위한 필수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들어 내고, 비타민 D를 합성해 칼슘의 흡수를 돕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관리

신장이 구조적 혹은 기능적으로 손상되어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컬어 만성콩팥병이라 한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신장 자체의 질병인 만성사구체신염 또한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등의 원인 질환 치료와 관리가 필수다. 그 이외에 지나친 염분 섭취를 피하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및 검사(조영제)의 남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병에 대한 인지가 매우 어려우므로 고혈압 및 당뇨가 있는 환자는 주기적인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통하여 신장 합병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나 고혈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성콩팥병 위험인자로는 비만, 만성콩팥병의 가족력, 65세 이상의 고령, 요도폐쇄, 자가면역질환, 대사증후군, 콩팥 독성약물 노출, 요로감염, 저체중 출산, 단일콩팥, 심혈관질환,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다.

만성콩팥병은 진단 이후에도 기저질환 관리, 저염식이, 혈압·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전해질 불균형·빈혈·체내 수분 조절 등의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만성콩팥병 진단 이후에는 신장 내과 전문의에게 주기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



●● 만성콩팥병 의심 증상

-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갈색을 띤다.
-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
-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떨린다.
- 매사에 피곤함을 느낀다.
-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있다.
- 피부색이 평소보다 검거나 창백하다.
- 손발이 저리고 둔해진다.
-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
- 딸꾹질을 자주 한다.

●● 건강한 신장을 위한 생활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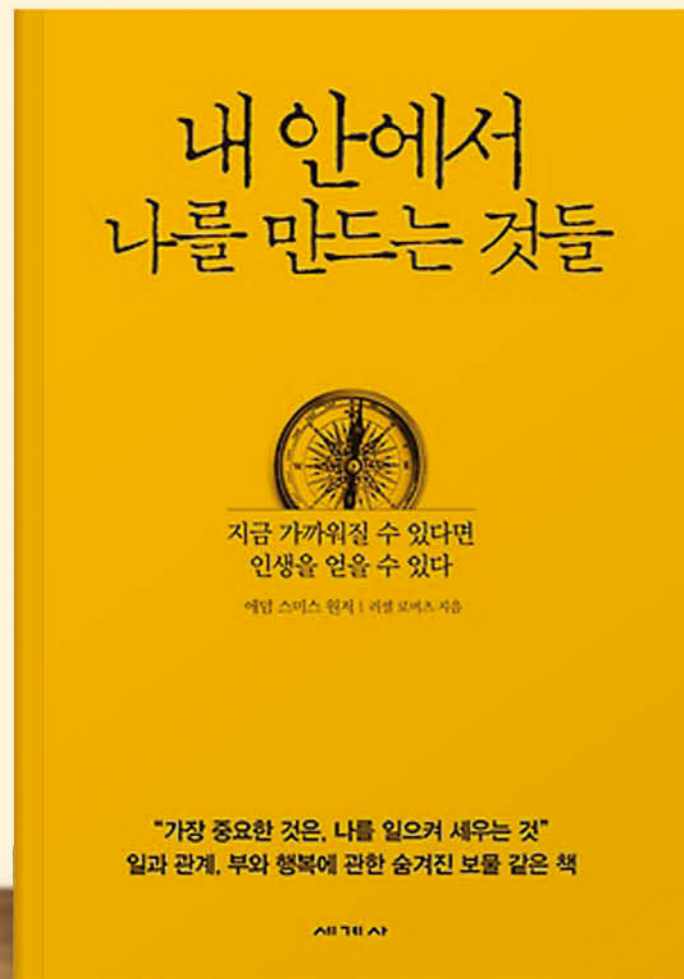
-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의 지나친 섭취를 피한다.
-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
- 담배는 끊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 주 3회 이상 30분씩 운동한다.
- 꼭 필요한 약만 신장 기능에 맞게 복용한다.
- 고혈압, 당뇨병은 철저히 치료한다.
- 정기적으로 소변 단백질과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를 한다.



“지금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저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기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이럴 때일수록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 새로운 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차가워진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책과 함께한다면 더욱 뜻깊은 새해맞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BOOK INFO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지은이 애덤 스미스, 러셀 로버츠

옮긴이 이현주

펴낸곳 세계사

출간일 2015.10.27.

페이지 304

ISBN 9788933870648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일과 관계, 부와 행복에 관한 숨겨진 보물 같은 책

세계사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 자신일까, 또 다른 무엇일까?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인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외부적 요소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업, 사는 곳, 자동차, 통장 잔고 등 지금 나는 내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한 가지 때문이다. ‘잘되는 나’, 더 나은 삶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잘되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부론』의 저자, ‘자본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어떤 거창한 주장을 펼쳤을까?

애덤 스미스는 이런 인간의 본 모습을 일찍이 알아차렸던 것 같다. 그는 더 나은 삶, 잘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옥같은 해답지를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정성스레 담아냈다. 사람과 인생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빛나는 불후의 역작이다.

이 숨겨진 대작을 스탠포드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러셀 로버츠가 다시 고집어내어 쉽게 풀어쓴 책이 출간됐다. 250년 전 쓰여진 고전을 전 세계 현대인의 삶에 맞추어 새롭게 설명한 책,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다. 『도덕감정론』이라는 원저의 중심 내용을 친절히 해설,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교양 도서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은 옛 고전이 주는 무게감을 덜어내도록, 쉽고 편하게 쓰였다. 그렇지만 원저가 주는 깊이와 감동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핵심과 정수를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 예습’이자 ‘인생 수업’이라 할 수 있다.



부, 행복, 관계의 균형을 찾는 가장 완벽한 인생 수업

생전의 애덤 스미스는 묘비에 『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지길 원할 만큼 이 책을 아꼈다. 『국부론』과는 다르게 평생 동안 6번의 개정판으로 고쳐낼 정도였고,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 철학자였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세상까지 원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이런 욕심을 긍정적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우리 욕심을 만족시킬 답을 찾아주고자 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은 부, 행복, 이기심, 이타심, 정의, 관계 등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훌륭한 고전이 가지는 위대함이 자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 책은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앞으로의 인생을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고전이 주는 오래된 향기에 빠져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돈이 전부다.’라는 논리가 자꾸 사실처럼 되어가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시대다. 다행히 사람의 인생은 부에 굴복할 만큼 만만하지는 않다. 우리의 삶은 훨씬 정교하고 섬세하며, 수많은 가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만드는 소중한 가치에도 깊이 신경 쓰자.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 그런 당신의 노력을 열심히 도울 것이다. 그렇게 나의 내면에 그 가치들을 잘 심어놓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내 중심이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보다 더 잘되는 삶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제공_도서출판 세계사]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We, Believe"

실종아동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체육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실종아동찾기 "We, Believe" Campaign

대한체육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We, Believe"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참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매년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 아동은 750명이 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는 "We, Believe"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적극 장려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제보는 경찰청 국번 없이 18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세계질 썰매장
슬레드힐



이색 테이트코스
2030 초보커플존



아빠와 함께 즐겨요
어린이 승마장



'금단의 땅' 둘러보는
경주마랜드 투어

365일 빛의 馬법이 펼쳐진다!
일루미아 빛 축제
Grand Open



국내 최대 빛 테마파크 일루미아

Lets Run PARK 부산경남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새 이름

한국마사회 켈트런파크 부산경남은 매년 2,000여억 원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상충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우구대는 청신차, 물릴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락 IC인근 | 대표전화 051) 901-7114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렛츠런파크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수준 높은 진료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47,300㎡의 규모와 750개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

3.0T MRI, 128채널 MDCT 등 첨단장비 가동

부산대학교병원 협력진료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직접 진료하는 병원

EMR 등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첨단 디지털 진료환경 구축

특성화·전문화된 센터중심 전문병원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평생 건강 주치의로 지속적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센터

특성화된
전문센터
병원

- 건강증진센터
- 소화기센터
- 인공신장센터
- 인공관절센터
- 재활센터
- 복·흉강경수술센터
- 심혈관센터
- 장애인치과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www.busanmc.or.kr T. 051.507.3000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의료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힘찬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무릎 · 어깨 · 허리 아플 때?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 2014.10.07~2018.10.06

강남힘찬병원
강북힘찬병원
강서힘찬병원

부산 힘찬병원

목동힘찬병원
부평힘찬병원
인천힘찬병원
창원힘찬병원

동래 수안역 7번 출구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55
매주 화 · 목 8시 야간진료 ☎1899-255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5707-중-74848호

PARKLAND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PARKLAND CABRINI J.HASS PRELIN PL SPORTS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옷의 가치, (주)파크랜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입니다

Bⁿ 대선주조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대선주조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순한시원

16.9



광고: 사진은은, 모델: 김민서, 연출: 다인, 스타일링: 김민서, 헤어: 홍성우, 메이크업: 김민서



2016 사회공헌대상 부산고용대상 특별상